

업나무 다수확 전정법 구명

정식 2년차 새순 탄 후 땅위 5cm 높이서

가능성 고급 산나물류로 알려진 업나무의 다수확 전정법이 개발됐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은 업나무를 재배할 때 육묘한 삽수를 10~15cm 길이(굵기 0.5~1cm)로 잘라 봄에 1.8x1.8m 간격으로 정식한 후 1년간은 뿌리활차와 생육촉진을 위해 전정을 하지않고 그냥 키우다가 2년차인 봄에 새순을 수확하고 나서 지면에서 5cm 높이에서 전정을 할 경우 다수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채시험장에 따르면 업나무를 정식한 후 2년차 때 지면에서 5cm 높이에서 전정할 경우 나무의 성장 길이는 평균 60cm로 전정을 하지 않았을때의 73cm에 비해 13cm나 작아 생력화 작업에 유리했다. 또 가지발생률의 경우 무전정 68%, 20cm 높이 전정 78%, 10cm 높이 전정이 95%로 나타났는데 비해 5cm 높이로 전정했을 때는 100% 발생했다.

특히 수량에 직접 관계가 있는 1주당 가지 발생수는 평균적으로 무전정이 2.4개, 20cm 높이 전정이 2.5개인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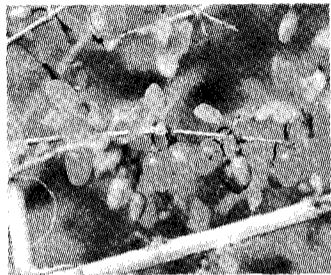
비해 10cm와 5cm 높이 전정에서는 3.3개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5cm 높이의 전정이 수량 증대 및 생력화 조건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업나무는 개두릅나무로도 불리며 강장·해열·신경통 등 다양한 약디효과 뿐 아니라 고급 산나물로서도 인기가 높다.

산채시험장의 김재록 농업연구사는 "업나무는 그동안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 훼손이 심각해 현재 보호수종으로 지정돼 있다"며 "성목은 키가 25m까지 자라므로 저수고 다지성 나무꼴로 가꾸어야 수량 증대 및 생력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기자 3품종 분양 병해충 강하고 다수확 청양시험장, 신청받아

충남도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장 서관석)은 병해충에 강하고 열매가 크며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구기자인 <블로><청대><청양>를 재배, 농업인들에게 분양한다.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순에 꺾꽂이 가지로 분양하는 구기자 신품종은 재래종에 비해 열매 크기가 1.3~1.5배 가량 크고 수확량도 50~70% 많으며 탄저병과 흑응애에 강한 품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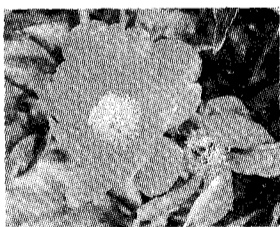
구기자시험장의 한 관계자는 "신품종은 수확량이 많을



뿐더러 품질도 뛰어나다"며 "다만 신품종의 경우 자가불화합성이 있어 한 품종만 심을 경우 꽃은 많이 피지만 결실이 안되므로 반드시 다른 품종인 수분수를 2대1로 섞어 심어 재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전화(041-943-1117, 041-943-6186)나 서신, 인터넷(www.gugija.re.kr)으로 하면 된다.

신품종 '미강작약 뿌리는 한약재로 꽃은 절화로 이용'



꽃과 뿌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미강작약이 개발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이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품종은 뿌리만을 한약재로 이용하던 기존의 작약과는 달리 꽃은 절화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10a(300평)당 뿌리의 약재 수량은 1,313kg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의성작약 1,104kg보다 209kg, 19% 많았으며, 뿌리굵기 10mm 이상의 상품 수량은 30%가 많다.

김재철 의성약초시험장 농업연구사는 "미강작약은 국내 어디서나 잘 자라 키우기가 쉽고 꽃은 수출도 가능해 시장성이 좋은 품종"이라고 말했다.

전화:054-673-8064

내년 특용작물로 바꿔 심어볼까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이 육성한 특용작물 7개 신품종이 새로 등록되고, 내년 부터 농가에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등록된 특용작물 품종 중에서 참깨·들깨·땅콩 등 주요 특용작물의 특징과 재배시 유의점을 소개한다. 품종명은 국립종자관리소의 최종 심사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 **안동 참당귀**-89년 봉화 지역에서 수집한 계통을 선발해 육성한 품종으로 추대율이 낮고 표준 품종인 <만추당귀>보다 11% 증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뿌리의 길이와 지름이 커 한포기당 생근의 무게가 높고 주요 약효성분 함량도 많다. 재배는 직파 재배와 온상육묘 이식재배

에는 2년생, 노지육묘 이식 재배에는 3년생에서 재증하도록 하며 타화수정 작물이므로 격리 재종해야 한다. 해발 400m 이상의 산간 고랭지에 재배 적합.

◆ **신도 토천궁**-지난 93년 무주지역에서 수집한 계통을 선발해 육성한 이 품종은 기존 재래종보다 뿌리 생육이 양호해 3년간 수원, 정선, 진안 등에서 지역적응 시험을 한 결과 건근중이 10a당 226Kg으로 재래종보다 약 20%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흰가루병에 비교적 강한 편이며 적응지역은 해발 300m 이상의 산간 고랭지다. 재배할 때는 배수가 잘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수확이 끝난 뒤에 종근은 노천에 매장해 보관한다.

1년만에 백출 생산할수 있다

농진청 작시, 재배기간 단축기술 개발

위장약 계통에 널리 쓰이는 한약재 백출 재배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겨울철 동안 60일 정도 육묘를 한 후 흑색비닐로 피복하고 8월 상순에 순지르기를 할 경우 파종 후 1년 만에 백출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출은 잔연산 일부를 제외 하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약재로 대체로 파종 후 2년 만에 수확한다. 그러나 재배기간이 길고 특히 여름 장마철에 근부병 발생이 심한 관계로 수량성이 낮아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작물시험장에 따르면 2월 10~4월10일 60일간 육묘한

모종을 흑색비닐로 피복한 후 정식하고, 8월 상순에 예취기 로 한번 순지르기 할 경우 11월에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a(300평)당 수량은 1년간 육묘해 생산된 종근을 다시 심어 2년만에 수확하는 관행재배에 비해 84%나 증수된 208kg이 생산됐다. 건조시킨 뿌리의 무게도 1주당 관행재배에 비해 2배가 높은 25.8g이었다.

특히 아인산염 2,500배액을 1주당 100ml씩 5월과 8월에 각각 2회 토양에 관주한 결과 근부병 발생률은 13.4%로 나타나 아인산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58% 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종자 가공·품질관리센터 준공

세미니스 코리아는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세계적 수준의 종자 가공 및 품질관리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지 8,500평, 연건평 3,615평에 이르는 이 센터는 종자의 정선시설, 향온·향습 저장창고, 포장 및 가공처리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종자의 순도 및 발아, 병리 여부를 검정하는 품질보증 관련 시설이 마련돼 고품질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윤진영 품질관리본부 본부

장은 "125억원을 투자한 이 시설은 국내에 공급하는 종자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종자업체들이 요구하는 종자를 가공처리해 상품화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채소종자의 물류 중심 기지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본부장은 "특히 순도가 높고 발아가 잘되며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없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게돼 농업인들이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당귀 육묘판 구멍 많을수록 좋다

수확량 늘고 생산비 절감효과 기대

참당귀를 하우스 내에서 상자육묘할 때 구멍 수가 많은 트레이(플러그묘판)를 사용하여 수확량을 늘릴 수 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참당귀 육묘 때 구멍이 200~288개 되는 트레이를 사용하면 모종 생산량도 많아지는데다 매트 형성(뿌리영김)일수도 구멍이 72~162개인 트레이에 파종했을 때보다 짧아 효율적인 육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당귀를 육묘할 때는 먼저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1대1의 비율로 섞어 상토를 마련해 놓는다. 다음 2월 중순께 구멍이 200~288개인 트레이에 상토를 채우고 참당귀 씨앗을 파종해 하우스 내에서 키우면 된다. 이때 파종량은 구멍 한개당 씨앗 3~4개로 하고 하우스 내부는 낮에는 30℃ 이상 올라가지 않게 환기를 하고 밤에는 5℃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보온한다. 이렇게 파종한 참당귀는 50~60일간 육묘를 한 뒤 4월 중순께 본 밭에 아주심으면 된다.

약초시험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참당귀를 육묘한 결과, 구멍이 200~288개인 트레이 한판 당 평균 186~265포기의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 형성 일수도 구멍 수가 많은 트레이에서는 47~51일인 데 비해 구멍 수가 적은 트레이에서는 55~67일이 소요돼 구멍이 많은 트레이를 쓰는 것이 단기간에 충실한 모종을 생산하는데 유리했다.

권오훈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농업연구사는 "참당귀를 하우스 내에서 육묘할 때 이처럼 구멍 수가 많은 트레이를 쓰면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